

2014. 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4.6.24.	대전MBC 대회의실	7/10	8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성정모, 김명수, 김형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서영석 사업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9	-	1	17	-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7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7건	5월
교양	창사 50주년 특집 프로그램 및 행사 예고 PR 라디오 매체에도 노출 필요	창사 50주년 특집 및 행사 예고PR 라디오에도 집중적으로 방송	5월
교양	토크 교양 프로그램 야외녹화 신선	토크 교양(토크 앤 조이) 프로그램 시의적절하게 야외녹화 진행	5월
교양	건강 교양 프로그램 전문의 섭외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줌	전문의 섭외시 진행능력 고려해서 섭외함.	5월
보도	선거방송 다시보기 계속 업그레이드	선거관련 방송 카테고리 항목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음.	5월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사이즈 기능 업그레이드 필요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업그레이드	5월
보도	앵커 클로징 멘트 타 방송사와 차별화	앵커 클로징 멘트도 경쟁사와 차별화하여 특화하고 있음	5월
교양	기행 다큐 프로그램에서 교통편 CG자막 처리 필요	교양 프로그램에서 위치 및 교통편 CG 자막 처리 함.	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6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허참의 토크&조이 「대전시립무용단 정은혜 예술감독」 (6/14) 편을 시청하였다. 이번 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대전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앞장서온 무용가 정은혜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방송의 방청객은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로 스승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얼마 전 대전시립무용단 퇴임공연에서 펼쳐진 대전의 인물과 환경 속에서 얻은 소재로 창작한 '대전심무'의 설명과 영상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였고, '대전심무'에서 나오는 각 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춤에 얽힌 사연들을 소개하는 시간은 한국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진행자들이 춤을 배우보는 시간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재미와 웃음을 자아내었고, 게스트가 생각하는 한국무용의 핵심과 원리, 매력, 감상포인트 등등 질문은 방송이 더욱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이끌었다(오덕성).</p>	<p>허참의 토크&조이는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는 공익적 오락 프로그램이다. 대전시립무용단 정은혜 예술감독은 대전뿐 아니라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무용가로, 2011년 7월부터 3년 간 대전시립무용단을 이끌어 오며, 한국무용계에서는 드물게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망라하는 무용가이다. 2011년 대한민국 무용대상에서 작품 '처용'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계룡이 날아오르샤'로 한국비평가협회 베스트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고민 끝에 선정한 출연자에 대해 좋은 의견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보다 의미있고 재미있는 출연자 발굴에 힘쓰겠다.</p>	○		
편성	<p>시사플러스 「용역노동자들의 눈물/ 한화이글스 2군 선수들」 (6월 13일) 편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번 시사플러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이익 문제와 퓨처스 리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화이글스의 2군 선수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올해 초부터 수자원공사의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으로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 일부 노동자들이 재계약 불가를 받아 불거졌다. 특히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용역노동자들만</p>	<p>시사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집중도와 양측의 의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은 항시 제작자들의 고민으로 남는다. 특히 노동문제 등 첨예한 사회 이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양측의 의견에 대한 균형보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역 노동자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많지 않은 임금과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사회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따뜻하게 바라보는 제작자의 마음과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차가운 이성을 경비해야 하는 것</p>	○		

	<p>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시사플러스의 관련 PD의 인터뷰에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의 원청업체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피해자들과 민주노총 측의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 나와 인터뷰를 통해 노조조합원 탄압 용역업체의 정황을 드러내었다. 또한 단체들의 관계와 자칫 말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는 그림을 통한 부연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법률에 관련한 내용들은 지침서를 강조하여 보여주며 신뢰도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오덕성).</p>	<p>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가슴 따뜻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p>	<p>TV특강 「환경경제학자, 홍종호 교수의 친환경메시지- 환경은 인간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가」(6월 10일 방송)을 시청하였다. 이번 주 TV특강은 경제적 측면에서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홍종호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잘 풀어 전달해주는 시간이었다. 특히 세종대의 현장 강연을 통해 좋은 강의와 함께 듣는 학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청자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홍종호 교수의 대답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다. 본 강의는 지난 3월의 세종대의 Big Question을 주제로 한 강의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동안 TV특강에서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 특성과 맞고 시민과의 교류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해 준다는 방송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다(오덕성).</p>	<p>지역MBC가 공동제작하는 프로그램인 TV특강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기울만한 내용을 우선시하면서 출연자를 섭외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하고 있는 이 때 홍종호 교수의 강연을 방송하였다. 전국 대상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소재와 출연진을 우리지역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강연을 방송하겠다.</p>		○	
<p>편성</p>	<p>생방송 아침이 좋다(6월 13일)에서 대전</p>	<p>제작진이 열의로 제작한 <목연회>에 대</p>		○	

	<p>대흥동 문화예술거리 묵연회를 소개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고, 바쁘게 지나는 거리를 일반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전시장의 틀을 벗어나 예술의 거리에서 보여준다는 새롭게 시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p> <p>코너 중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코너는 며느리가 바쁘신 시어머니를 위해 보양식을 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여 음식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는데 며느리가 요리전문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리전문가와 리포터가 조리방법을 설명하면서 만들어진 요리를 배달해주는 과정으로 제작되어서 사랑의 도시락이 아닌 일반 요리프로그램으로 보여서 아쉬웠다. 며느리가 정성스런 마음으로 직접요리에 참여하였다면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주제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한찬희).</p>	<p>한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 실험적이고 참신한 소재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다.</p> <p><점심愛>는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도시락을 통해 구성원 간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코너이다. 추상적인 개념인 정, 사랑 등을 표현하다보니 제작진의 의도대로 연출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과도한 연출로 표현할 경우 자칫 표면적이고 위선적인 코너로 평가절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작진은 정과 사랑이라는 주제의 표현에 고민하고 있다. 요리를 통한 사랑의 전달이라는 주제가 시청자들에게도 잘 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 .</p>			
<p>편성</p>	<p>시사플러스 「용역노동자들의 눈물」(6월 13일)편을 시청하였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병폐를 드러내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었다.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며 해고노동자들의 상황을 대변해주었으나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그에 비해 해고노동자의 고통스런 생활상에 대한 인터뷰나 실상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스튜디오에 출연한 PD의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대본에 의지하여 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전체 흐름과 분위기가 딱딱하게 느껴져 아쉬웠다(한찬희).</p>	<p>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제작PD가 프로그램과 겹돌지 않게 맥락을 짚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더 그러하다. 프로그램과 동심체를 유지하며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편성</p>	<p>TV특강 「환경경제학자, 홍종호 교수의 친환경메시지- 환경은 인간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가」(6월 10일 방송)을 모니터하였다. 지난정권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이 비판에 근거한 자료가 없이 그냥 환경을 파괴했다고만 하는 것이다. 강의내내 틀린말</p>	<p><TV특강>은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공동제작 회의때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한다. 자료화면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은 참고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p>	○		

	<p>은 없었지만 근거와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사회비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료화면이나 동영상등을 적절히 활용하였다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한찬희).</p>			
<p>보도</p>	<p>보도국 제작의 특별토론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듣는다’ (6월 16일 방송)를 시청하였다.</p> <p>우리지역 6.4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당선인들로부터 핵심 공약 사업들을 점검 하는 동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릴레이 특집 프로그램 편성은 광역단체장 취임전이어서 시의적절 하다 하겠다. 저녁 6시 시간대는 직장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시청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편성시간대이다. TV로컬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가 주로 오후 6시대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시간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치더라도 일반 프로그램과는 달리 무거운 주제를 안고 한 시간가량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대는 물리적으로 아니었고 정말 인내심이 필요했다. 영상연출법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뉴스센터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카메라 워킹은 단조로운 수밖에 없어서 카메라 샷을 보강하여야 한다. 지미집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부감 샷 카메라를 활용하여 향후 좀더 동적인 화면이 뒤따랐으면 한다. 특별토론 패널들의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적절했고 이어진 질문에 대한 자막 제공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변화 (change up pace)가 거의 보이지 않는 권당선인의 차분(?)한 멘트는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았을 듯싶다. 앞으로 자주 출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면 누군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었으면 한다. 한 패널의 질문 중 %를 퍼센트가 아닌 프라고 계속 발음한 점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김학선).</p>	<p>지적하신 대로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에 대한 점검이라는 내용적 한계 때문에 취임 전인 6월 말까지 방송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편성시간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브라질월드컵대회 기간이어서 더욱 어려웠다.</p> <p>토론 프로그램의 단조로운 카메라 워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뉴스센터가 협소한 탓도 있지만 카메라 인력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현재는 부감 카메라에 카메라맨을 배치하지 못해 고정 폴샷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샷을 위해 부감 카메라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p> <p>출연자의 경직된 표정이나 어투, 잘못된 용어 사용 등은 즉석에서 바로잡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회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p>	<p>월드컵 중계방송을 비롯해 스포츠 채널의 프로야구 중계, 그리고 맛집 소개 프</p>	<p>아나운서를 중심으로 바른 우리말 사용에 유의하고 있지만, 생방송의 경우 프</p>		

	<p>그램 등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게 되는 말중에 ‘ ~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 ~ 같다.’는 same (동일)의 의미로 똑같은을 얘기할 때 ‘ ~ 같다.’라고 사용한다.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이다.’, 또는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로도 붙여 쓴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이나 결과물이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아무 곳 에서나 ‘ ~ 같다’ 라는 종결 어미를 남발 하게 되면서, 말 하는 사람의 자신감 결여로 비칠 수도 있고 화자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초래하게 된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의미에 맞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 ~ 같다’ 라는 종결어미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방송계에서부터 올바른 사용에 솔선수범 해야하지 않을까?(김학선).</p>	<p>리랜서 방송인, 연예인의 사용언어에서 부적절한 우리말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p> <p>사전, 사후 교육을 통해 정확한 우리말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겠다.</p>			
기타	<p>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시청자 게시판을 만들어 시청자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게시판은 시청자의견, 시청자게시판, 열린 게시판, 자유게시판 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MBC는 이러한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청취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p> <p>특히 대전MBC와 부산MBC는 다른 지방 MBC와는 다르게 시청자의견에 대한 게시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게시판을 따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대전MBC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청자 세상’ 게시판을 살펴보면 시청자의견, 시청자불만처리결과, 공지사항, 묻고 답하기, 시청자위원회, 경영자문위원회, 고충처리, 대전MBC클린센터로 구성되어 있다.</p> <p>시청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따로 [묻고 답하기] 란을 개설한 지방MBC방송사는 대전MBC와 부산MBC 밖에 없다. 이왕 [묻고 답하기] 코너가 있는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빠르게</p>	<p>대전MBC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 전체를 재개편하였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신속하게 게재하겠다.</p>		○	

	<p>게시해주길 바란다. 대전MBC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앞으로 시청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기한을 설정하고, 빠짐없이 답변이 이루어져 시청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장백기).</p>			
<p>편성</p>	<p>시사플러스 「한화이글스 2군 선수들」(6월 13일) 편을 시청하였다. 대전 한화이글스 2군 선수들을 집중 조명하였다. 1군 경기와는 달리 응원석의 관중도 선수들을 돕는 스태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언젠가 찾아올 1군 진입의 기회를 담고 있다. 방송에서 2군 선수들의 1군 진입을 위한 해결책 제시가 미약하다. 더불어 한화이글스의 성적 부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도 같이 지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박희원). 한화이글스의 2군 선수들을 소개하고 인터뷰는 하는 부분은 방송 말미에 적은 분량으로 방송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방송이다(오덕성).</p>	<p>한화이글스의 2군 선수들 역시 스포트 라이트에서 벗어나있지만, 미래의 희망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아이템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메인이슈와 서브 이슈로 2개의 아이템을 소화하다보니, 짧은 시간배정으로 아쉬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방송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임하겠다.</p>		○
<p>보도</p>	<p>최근 대전MBC 뉴스를 보면 ‘이슈발굴’이 약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뉴스가치로 볼 때 일상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MBC 보도국 간부가 “비판을 해야만 좋은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과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다. 대전 충남의 이슈를 발굴해 아젠더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송인덕).</p>	<p>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월드컵 분위기 와 맞물려 지역 의제 설정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보도국 취재부 기자들이 출입처를 허물고 현재 다양한 기획보도안을 구상 중이다. 언론 본연 사명 가운데 하나인 아젠다 세팅에 더욱 매진하겠다.</p>		○
<p>보도</p>	<p>알제리전에서 대표팀이 패배했다. 새벽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한국팀이 졌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뉴스데스크에서 첫 꼭지로 알제리전 패배를 보도하였다. 아침에 기사화된 것을 저녁 뉴스로 다시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시되지만 이왕 방송할 것이 라면 한국팀 전략의 문제점, 앞으로 벨기 아와 경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지적했어야 한다. 월드컵 응원한 여학생 1명을</p>	<p>앞으로 인터뷰이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한국팀의 전략 등을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월드컵 관련 지역과 밀접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취재를 강화하겠다.</p>		○

	<p>인터뷰 했는데 “눈물나요, 짜증나요” 라는 말을 여과없이 방송하였다. 10대의 전형적인 말투가 방송용으로 적합했는지 의문시된다(송인덕).</p>			
<p>보도</p>	<p>대전MBC가 ‘새마을금고 200억 부정대출 의혹’을 단독보도 하였다. 새마을금고가 지역별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 새마을금고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점의 새마을금고인지 밝히는 것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송인덕).</p>	<p>앞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비리 의혹에 대한 사전 보도가 있었다. 당시 익명 처리해 보도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속보도에서는 실명 처리를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앞으로 사건의 경중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고발 보도 시 실명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p>		○
<p>보도</p>	<p>4대강 사업 여파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은 금강을 생활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집중 보도 해야 한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금강 녹조 현상과 더불어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대전MBC에서는 6월 20일 금강수질 경보를 내렸다는 단순한 팩트 위주의 보도를 하였다. 금강수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후속으로 집중적인 심층취재가 필요하다(송인덕).</p>	<p>그 동안 4대강 금강 사업과 관련한 부작용과 문제점, 대안 등을 꾸준히 보도해왔다. 앞으로 ‘금강 외래생물 번식 확산’, ‘4대강 사후 관리 소홀’. ‘수질 악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취재할 계획이다.</p>		○
<p>편성</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초대석 코너에 대전시향 금노상 예술감독이 출연하였다(6월 11일)대전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손꼽히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해 대전시향의 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는 취지로 이 코너가 기획되었다. 구성이 너무 허술하다. 대전시향이 시민들과 교감하기 위해 준비(찾아가는 천원의 행복콘서트 등)하고 있는 내용이 빠져 있고 영상으로 소개된 대전시향의 원헌, 비엔나 공연 자막처리가 빠져있어 공연장소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MC의 진행어투도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80% 이상의 관객이 기립박수로 호응해줬다는 예술감독의 발언을 맞아 “20%는 다리 아파서 못일어났나 보죠..”는 생뚱맞는 발언이 그 예이다. 시립</p>	<p><아침 초대석>의 경우 사전 ENG 제작이 아닌 말 그대로의 생방송이다보니, 의도치 않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전시향 금노상 예술감독이 출연했던 11일의 경우,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언급된 멘트를 구사하였으나, 주변 상황과 타이밍이 적절치 않아 어색하였다. 방송후 제작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향후 보다 신중한 방송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p>		○

	교향악단의 고유의 맛을 느끼지 못한 초대석이었다(유덕순).				
보도	6.4.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대전충남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의 행보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대전시장의 경우 공약 발표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지 지속적으로 차분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시정의 방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될 것이다. 대전충남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의 경우(진보, 보수, 중도)도 교육현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짚어보야 한다(오덕성)	7월 1일부터 ‘민선 6기, 새출발’이라는 타이틀로 대전세종충남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기획보도가 방송될 예정이다. 민선 6기 지방자치, 교육자치 현장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		
보도	정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특정학과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히 인문학의 위기이다. 산업적 수요에 맞추어 유구한 역사를 지닌 특정학과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취재를 통해 꾸준히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의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고 본다(오덕성)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는 진단도 있다. 지역 대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뉴스를 제작하겠다.	○		

대전 MBC

www.tjmbc.co.kr

대전문화방송(주)
305-7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도룡동) 대표전화 : (042)330-3114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
161 Expo-ro, Yuseong-gu, Daejeon, 305-740 Korea

담당: 정종건 전화: 330-3600 FAX: 330-3700

문서번호 : 대문방 경영심의 제253호 2014. 7. 4.

수 신 : 방송통신위원장

참 조 : 방송기반총괄과장

제 목 : 2014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6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 2014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



대전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김 창

